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어려운지문 어려운 선지 정답52344

(가)

실재란 무엇이며, 인간의 언어는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20세기 초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철학적 문제 대부분이 언어의 오용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과학처럼 엄밀하게 정제된 언어만이 실재를 올바르게 기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의 초기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이었다. 그에 따르면 의미 있는 명제는 실재의 논리적 그림이며, 명제를 구성하는 이름들은 실재의 근본 요소인 대상들과 일대일로 대응한다. 이 대응 관계가 완벽할 때 언어는 세계의 구조를 거울처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도는 윤리나 형이상학처럼 사실적 상태에 대응하지 않는 유의미한 문장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논리실증주의자 카르납 등을 중심으로 제시된 ‘검증 원리’는 언어와 실재의 관계를 ‘대응’이 아닌 ‘검증 가능성’의 문제로 전환시켰다. 어떤 문장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그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 원리에 따르면 문장은 단어의 정의만으로 참이 되는 ‘분석 명제’와 경험적 관찰을 통해 검증되는 ‘종합 명제’로 나뉜다. 이 두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문장은 사실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검증 원리 역시 스스로 설정한 엄밀함의 기준을 넘지 못하는 역설에 직면했다.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과학 법칙조차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례를 넘어 미래의 무한한 사례까지 경험적으로 모두 검증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실재를 완벽하게 포착하려던 논리실증주의의 원대한 기획은 언어와 경험 사이의 넘을 수 없는 간극을 확인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나)

언어가 실재를 반영한다는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언어학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소쉬르는 언어를 기호들의 체계로 보고 각 기호가 의미를 갖는 것은 그 기호가 외부의 사물을 직접 지시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호는 청각 영상인 ‘기표’와 그것이 가리키는 개념인 ‘기의’의 자의적 결합이다. ‘나무’라는 기표가 나무라는 기의와 결합하는 데에는 어떠한 필연성도 없다. 대신, 각 기호의 가치는 다른 기호들과의 ‘차이’의 관계망 속에서만 결정된다. ‘나무’가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풀’이나 ‘숲’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소쉬르에게 의미는 긍정적 인 내용이 아니라, 체계 내의 부정적인 차이들의 효과이다.

데리다는 소쉬르의 이러한 통찰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급진

적으로 밀어붙여 서양 형이상학의 근간인 ‘현전’의 철학을 해체한다. 그가 제시한 ‘차연(différance)’은 소쉬르가 말한 공간적 ‘차이’뿐만 아니라, 의미가 끊임없이 뒤로 미루어지는 시간적 ‘지연’의 운동까지 포함한다. 어떤 기표도 그 자체로 완결된 기의를 현전시킬 수 없으며, 그 의미는 언제나 다른 기표들의 ‘흔적’을 통해서만 암시될 뿐이다. 예를 들어 ‘아들’이라는 기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딸’과 같은 다른 기표들을 참조해야 하며, 이 참조의 연쇄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차연의 운동은 의미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주체’의 동일성마저 위협한다. 언어 속에서 사유하는 주체는 결코 언어의 바깥으로 나가 순수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없다. 주체 역시 다른 기호들과의 차이의 관계망 속에서 구성되는 불안정한 효과일 뿐이다. 따라서 의미와 주체가 확정된 실재가 아니라, 기표들의 끝없는 상호 참조와 지연의 유희 속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데리다의 결론이다.

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논리실증주의는 언어가 실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문장의 조건을 규정하려 했다.
- ② 검증 원리는 미래의 모든 사례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과학 법칙의 보편성을 정당화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 ③ 소쉬르는 기호의 의미가 외부 대상과의 직접적 관계가 아닌 기호 체계 내의 다른 기호들과의 차이를 통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 ④ 데리다는 언어 체계 내에서 기의의 현전이 끊임없이 지연되기 때문에 주체의 동일성 또한 확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⑤ 소쉬르는 기호가 기표와 기의의 필연적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2. (가)의 논지 전개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림 이론’이 윤리적 문장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는 경험적 검증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 ‘검증 원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
- ② ‘그림 이론’이 언어와 실재의 일대일 대응을 추구했다면, ‘검증 원리’는 그 직접적 대응의 문제를 경험적 절차의 문제로 전환시켰다.
- ③ ‘검증 원리’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문장을 나눈 것은 ‘그림 이론’이 가정한 명제와 실재의 구조적 동일성을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 ④ 논리실증주의가 과학 법칙의 보편성을 검증하는 데 실패한 것은 언어가 실재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 ⑤ ‘그림 이론’에서 ‘검증 원리’로의 이행은 철학의 탐구 대상을 실재에서 언어로 옮겨오는 논리실증주의 내부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3. (나)에 나타난 소쉬르와 데리다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데리다의 ‘차연’은 기호의 가치가 차이를 통해 결정된다는 소쉬르의 이론이 가진 내재적 모순을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한다.
- ② 소쉬르가 기호 체계의 ‘공시적 구조’에 집중했다면, 데리다는 의미가 생성되는 ‘통시적 과정’을 추가하여 소쉬르의 이론을 보완한다.
- ③ 데리다는 기호의 의미가 차이를 통해 결정된다는 소쉬르의 원리를 급진화하여 그 차이의 운동이 고정된 기호의 현전 자체를 무한히 지연시킨다고 주장한다.
- ④ 소쉬르의 이론이 언어학 내부의 문제에 집중한다면, 데리다의 이론은 그 이론을 사회 비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철학의 외연을 확장한다.
- ⑤ 데리다는 소쉬르가 간과했던 기표와 실제 대상의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언어가 실재를 지시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4. (가)와 (나)의 언어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언어를 세계를 기술하는 도구로, (나)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본다.
- ② (가)는 의미의 명료성을 추구하는 반면, (나)는 의미의 비결정성을 언어의 본질적 속성으로 간주한다.
- ③ (가)의 최종적 한계와 (나)의 결론은 모두 인간의 언어가 세계의 궁극적 실재를 완벽하게 포착할 수 없다는 지점에서 수렴한다.
- ④ (가)가 언어와 경험의 일치를 중시한다면, (나)는 언어와 사유의 일치를 통해 의미가 발생한다고 본다.
- ⑤ (가)는 언어의 한계 바깥의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규정하는 반면, (나)는 그 한계 자체를 언어가 작동하는 필연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인다.

5. <보기>는 한 철학자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윗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진리는 객관적인 체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주체가 자신의 실존을 걸고 격정적으로 선택하고 반복하는 ‘주관성’ 안에 있다. 객관적 불확실성 속에서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던지는 ‘믿음의 도약’이야말로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어떤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명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그 증명의 불가능성이야말로 믿음을 가치 있게 만든다. 예를 들어 신의 존재가 2+2=4처럼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어떠한 열정도, 결단도, 실존도 필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진리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문제이다.

- ① 논리실증주의자에게 <보기>의 진리 개념은 경험적으로 검증 불가능하고 언어적으로 무의미한 유사개념에 불과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객관적 불확실성이 ‘믿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처럼 데리다에게서도 ‘차연’의 운동은 기호가 하나의 안정된 진리를 가리키고 있음을 암시한다.
- ③ <보기>의 관점에서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추구한 ‘과학 법칙의 보편성’은 그것이 설령 객관적으로 증명된다 해도 개인의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하는 비실존적 진리로 간주될 것이다.
- ④ 데리다는 <보기>에서 ‘믿음의 도약’이 객관적 증명의 불가능성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의미의 현전이 부재하기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차연’의 운동으로 이해 할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므로써 생기는 것들의 결과는 소쉬르의 관점에서 기표가 실제 대상과 결합해서 생기는 결과와 같은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쉬운 지문 쉬운 선지, 첨예한 변별 정답:554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인류에게 기술적 편의를 넘어 인간과 기계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법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율적 AI 시스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고 책임을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 논의의 핵심에는 전통적인 법체계가 상정해 온 법적 주체의 개념을 AI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라는 첨예한 쟁점이 자리 잡고 있다.

초기 AI에 대한 법적 논의는 주로 AI를 인간의 행위를 보조하는 정교한 도구로 간주하는 관점에 기반했다. ㉠이 관점에서 AI는 법적으로 망치나 자동차와 같은 사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AI가 야기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AI의 제작자, 프로그래머, 또는 운용자 등 배후의 인간에게 귀속된다. 이는 ‘약한 AI’, 즉 주어진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과업만을 수행하는 AI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심층 학습을 통해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강한 AI의 등장은 이러한 전통적인 책임 귀속의 연쇄 고리를 끊어버릴 가능성을 내포한다. AI의 판단 과정이 개발자조차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블랙박스’가 될 때, 그 결과를 예측하고 통제하지 못한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 공백’ 문제에 직면하여 일부 학자들은 강한 AI에게 제한적이거나 새로운 형태의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급진적인 주장을 제기한다. 법인격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의미하며 인간 외에도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 법인이다. 예컨대 회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고도로 자율적인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독립된 자산을 가지고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전자적 인격체’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AI가 발생시킨 손해를 일차적으로 AI 자체가 배상하도록 하여 책임의 공백을 메우고,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격 부여론은 법적 주체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의도, 이해, 책임 능력과 같은 인간 고유의 정신적 속성을 요구하는 전통 법철학의 근간을 흔들다는 점에서 강력한 반론에 부딪힌다. 반대론자들은 AI가 아무리 정교한 연산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은 프로그램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일 뿐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결과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지려는 내적 의지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진짜 주체인 인간에게 면죄부를 주고 정작 책임질 능력이 없는 기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의 환상’을 만들어낼 뿐이다. 결국 이 논쟁은 우리가 법적 책임을 결과의 공정한 분배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자유의지에 기반한 행위라는 도덕, 철학적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낸다.

6.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약한 AI는 전통적인 법체계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그 책임은 배후에 있는 인간에게 귀속된다.
- ② 강한 AI의 판단 과정이 ‘블랙박스’화되는 현상은 AI가 야기한 손해의 책임을 인간에게 묻는 전통적 방식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③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AI를 독립된 자산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로 상정한다.
- ④ AI의 법인격에 대한 반대론은 AI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내면적 의지나 이해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 ⑤ 윗글에 따르면 ‘책임의 환상’은 AI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익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7.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AI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물로 간주한다는 점은 AI에게 법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의 관점과 전제를 모두 공유한다.
- ② ㉠의 관점이 강한 AI의 등장으로 인해 직면한 ‘책임의 공백’ 문제는 ㉡이 제안한 ‘전자적 인격체’ 개념을 통해 AI의 내면적 의지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해결된다.
- ③ ㉡이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법인 역시 인간과 같은 내면적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 관점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 ④ ㉢이 제기하는 ‘책임의 환상’이라는 비판은 ㉡의 주장이 ㉠이 제시한 전통적인 책임 귀속의 연쇄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 ⑤ ㉡이 AI의 법적 지위를 사물에서 주체로 격상시키려 한다면, ㉢은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법적 책임의 진짜 주체인 인간을 AI의 배후에 은폐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한다.

8. 윗글의 논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완전 자율주행 AI ‘알파’가 탑재된 자동차가 운행 중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렸으나, 결국 옆 차선의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 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알파’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명 피해보다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에 따라 최선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AI 스스로 생성한 것이어서, 제작사는 이러한 특정 판단을 예측하거나 직접 제어할 수 없었다.

- ①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는 관점에서는 ‘알파’의 판단이 제작사의 예측을 벗어났으므로 제작사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② ‘전자적 인격체’ 개념을 적용한다면 ‘알파’가 소유한 독립된 자산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③ ‘책임의 공백’은 ‘알파’의 행위가 알고리즘에 따른 최선의 판단이었고, 그 판단을 개발자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법적 결론을 의미한다.
 ④ ‘책임의 환상’을 경계하는 관점에서는 ‘알파’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알고리즘 설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제작사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할 것이다.
 ⑤ 윗글의 두 관점을 종합하면, ‘알파’의 법인격을 인정하여 일차적 책임을 지게 하되, 그 배후의 제작사에게는 알고리즘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최종적인 책임을 분담시켜야 한다.

1. 핵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나)의 2문단에서 소쉬르는 기호가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결합이라고 하였다. ‘자의적’이라는 것은 둘의 결합에 어떠한 필연성도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표와 기의의 필연적 결합을 주장했다는 ⑤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는 “엄밀하게 정제된 언어만이 실재를 올바르게 기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였다. ② (가)의 3문단에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와 같은 과학 법칙은 미래의 무한한 사례까지 모두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검증 원리가 과학 법칙의 보편성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하였다. ③ (나)의 2문단에서 소쉬르는 기호의 가치가 “다른 기호들과의 ‘차이’의 관계망 속에서만 결정된다”고 하였다. ④ (나)의 4문단에서 데리다는 “의미와 주체가 확정된 실재가 아니라, 기표들의 끝없는 상호 참조와 지연의 유희 속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기의의 현전이 지연되기 때문에, 언어 속에서 사유하는 주체의 동일성 역시 확정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 논지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 해설: (가)의 1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은 언어와 실재가 ‘일대일로 대응’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2문단에서 카르납 등의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검증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언어와 실재의 관계를 직접적인 ‘대응’의 문제에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경험적 절차’의 문제로 전환시킨 것이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검증 원리는 윤리나 형이상학처럼 검증 불가능한 문장을 ‘무의미’한 것으로 배제했을 뿐, 그 문장들을 설명하는데 성공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검증 원리가 문장을 분석/종합 명제로 나눈 것은, 언어와 실재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검증’으로 재설정한 것이지, ‘그림 이론’의 구조적 동일성 가정을 직접적으로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검증 가능한 종합 명제는 구조적 동일성의 관념을 일정 부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과학 법칙 검증의 실패는 ‘검증 원리’ 자체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지, ‘그림 이론’이 추구했던 ‘언어가 실재를 반영하는 것’의 불가능성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두 이론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⑤ ‘그림 이론’과 ‘검증 원리’는 모두 언어와 실재의 관계를 다루므로, 탐구 대상이 실재에서 언어로 옮겨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 해설: (나)의 2문단에서 소쉬르는 의미가 기호들 간의 공간적 ‘차이’를 통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3문단에서 데리다는 이를 계승하여, 의미가 다른 기표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지연’된다는 개념을 추가했다. 즉, 데리다는 소쉬르의 ‘차이’ 개념을 시간적 차원까지 포함하여 급진화함으로써, 그 차이의 운동이 고정된 기의, 즉 의미의 완전한 현전(presence)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데리다는 소쉬르 이론의 내재적 모순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의 함의를 급진적으로 밀어붙여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② ‘공시적’, ‘통시적’이라는 용어는 지문에 근거가 없으며, 데리다가 추가한 ‘자연’은 시간적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의 핵심은 의미 생성의 구조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소쉬르의 이론을 단순히 보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데리다의 이론이 사회 비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지문은 그의 이론을 철학 내부, 특히 형이상학 비판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⑤ 데리다는 기표와 실제 대상의 관계를 복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가 불가능함을 보여주려 했다.

4. 두 관점의 종합적 비교

정답 해설: (가)에서 논리실증주의는 언어와 ‘경험’의 일치를 통해 의미를 확보하려 했다. 반면, (나)에서 소쉬르와 데리다는 의미와 언어 체계 ‘내부’의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이는 언어와 사유가 분리될 수 없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나)가 언어와 사유의 일치를 통해 의미가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이라는 진술은, (가)의 관점과 대비하여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다. (나)의 관점은 언어와 사유의 일치보다는, 언어 체계 자체의 내적 논리를 강조한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가)는 언어를 세계를 기술하고 검증하는 ‘도구’로 보지만, (나)는 언어의 구조가 우리의 사유와 이해 자체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본다. ② (가)는 의미가 없거나 모호한 문장을 제거하여 ‘명료성’을 추구하지만, (나)의 데리다는 의미의 ‘비결정성’이 언어의 본질이라고 본다. ③ (가)는 과학 법칙을 검증하지 못하며 한계에 부딪혔고, (나)의 데리다는 의미의 현전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둘 다 언어가 실재를 완벽히 포착할 수 없다는 지점에서 만난다. ⑤ (가)는 검증 불가능한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규정하여 언어의 경계를 설정하지만, (나)의 데리다는 의미가 확정될 수 없다는 그 ‘한계(차연)’ 자체가 언어가 작동하는 필연적인 조건이라고 본다.

5. 다른 견해와의 비교 및 적용

정답 해설: (나)의 3문단에서 데리다의 ‘차연’은 의미가 고정된 기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른 기표들을 참조하며 끊임없이 지연되는 운동을 의미한다. <보기>에서 ‘믿음의 도약’은 객관적 증명의 불가능성, 즉 진리의 불확실성을 조건으로 하여 주체가 결단을 내리는 행위이다. 데리다에게 의미의 현전이 ‘부재’하기에 비로소 차연의 운동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보기>에서도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기에 비로소 믿음의 도약이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데리다는 <보기>의 믿음의 도약이 가진 구조를, 자신의 차연 개념과 유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④번 선지는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보기>의 진리는 주관적 결단에 속하므로, (가)의 논리실증주의자에게는 경험적으로 검증 불가능하고 언어적으로 무의미한 유사 개념에 불과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② (나)의 데리다의 ‘차연’은 안정된 진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운동이다. 따라서 차연의 운동이 안정된 진리를 ‘가리키고 있음을 암시한다’는 진술은 데리다 이론의 핵심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③ <보기>의 관점에서, (가)의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추구한 ‘과학 법칙의 보편성’은, 그것이 설령 객관적으로 증명된다 해도 주체의 실존적 결단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하는 비실존적 진리로 간주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믿음의 가치를 낳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나)의 소쉬르의 관점에서 기표가 실제 대상과 필연적으로 결합하지 않는다는 ‘자의성’은, 그 자체로 어떤 결과를 낳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언어 체계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두 개념의 위상과 역할이 다르므로, 그 결과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6~8]

6. 핵심 내용 이해

정답 해설: 4문단에서 ‘책임의 환상’은,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진짜 주체인 인간에게 면죄부를 주고 정작 책임질 능력이 없는 기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⑤번 선지는 ‘책임의 환상’을, 법인격 부여가 사회적으로 유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문에서 설명한, 책임의 주체를 ‘전가’하고 ‘은폐’한다는 핵심적인 비판 내용과 다르다. 따라서 ⑤번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2문단에서 ‘약한 AI’는 “법적으로 망치나 자동차와 같은 사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AI의 제작자, 프로그래머, 또는 운용자 등 배후의 인간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2문단에서 ‘강한 AI’의 판단 과정이 ‘블랙박스’가 될 때, “그 결과를 예측하고 통제하지 못한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③ 3문단에서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AI를 “독립된 자산을 가지고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전자적 인격체’”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④ 4문단에서 법인격 부여에 대한 반론은 AI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결과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 지려는 내면적 의지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7. 세부 관점 비교

정답 해설: ㉠은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이고, ㉡은 그에 대한 반론이다. ㉡의 관점(반론)은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진짜 주체인 인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한다. 즉, ㉠의 시도가 법적 책임의 진짜 주체인 인간을 AI라는 존재 뒤에 숨겨주는(은폐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한편, ㉠의 주장은 AI를 더 이상 단순한 사물(도구)이 아닌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격상시키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⑤번은 두 관점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과 ㉡은 모두 AI가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보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은 ‘인간 고유의 정신적 속성’을 전제로 하는 반면 ㉠은 그러한 전제를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제를 모두 공유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은 ‘전자적 인격체’라는 법적 자격을 부여하여 책임의 공백을 메우려 할 뿐, AI의 ‘내면적 의지’를 법적으로 인정한다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내면적 의지’의 부재를 비판의 근거로 삼는다. ③ ㉠이 법인격을 주장하는 근거는 AI의 자율성이지만, 법인이 인간과 같은 내면적 의지를 갖춰야 한다는 ㉡의 관점을 수용한 것이 아

니다. 오히려 ㉔은 바로 그 점을 비판한다. ④ ㉔의 비판은, ㉓의 주장이 전통적인 책임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그 책임을 엉뚱한 곳(기계)에 ‘전가’한다는 것이지,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8. <보기> 적용 및 추론

정답 해설: 4문단에서 ‘책임의 환상’을 경계하는 관점(반대론)은,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진짜 주체인 인간에게 면죄부를 주고 정작 책임질 능력이 없는 기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보기>의 상황에서 ‘알파’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제작사’라는 진짜 책임 주체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④번은 지문의 비판 논리를 <보기>의 상황에 가장 정확하게 적용한 것이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AI를 ‘도구’로 보는 관점에서는, 제작사가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었는지가 책임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보기>에서 제작사는 예측하거나 제어할 수 없었으므로, 이 관점에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책임의 공백’ 문제와 연결된다. ② ‘전자적 인격체’ 개념은 AI 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만약 AI가 배상할 자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는 배상을 받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개념을 적용했을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타당하게 추론한 것이다. ③ ‘책임의 공백’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무과실’의 결론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책임의 주체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 상황’ 그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법적 결론’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개념을 오해한 것이다. ⑤ 윗글은 두 관점의 대립을 보여줄 뿐, 그 둘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선지는 지문에 근거하지 않은, 독자 임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갈래 복합

9.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10.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11.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12.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13.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14.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소설

15.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16.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17.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18.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 시가

19.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20.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21.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홀수형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법

- 3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3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법과 작문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4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출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

- 3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3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체

40.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1.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2.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3.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체

-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4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